

주간기도정보

2024. 4. 23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서울신대서 촉발된 창조신학 논쟁에 교계 안팎 들썩

창조과학회 “창조는 초과학적인 사건”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을 둘러싼 한 신학대 교수의 입장이 촉발한 논란에 교계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일선 교회 등 교계에선 성경적 창조론이 진화론적 입장에 도전받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창조론을 견지하는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창조는 초과학적 사건”이라며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기록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신학대는 2021년 신학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박영식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박 교수가 그의 저서 ‘창조의 신학’과 강의, SNS 게시물 등에서 유신 진화론만을 옹호하고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으로 깎아내린 점, 소속 교단의 창조론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국내 조직신학자들은 전날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본래 신학자의 과제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지적·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과거의 신학 이론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기독교의 창조론이 현대 과학과 대화해야 한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반지성적인 종교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신학대 신학부 교수진은 학교 측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교수진은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신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창조 교리를 창조신학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오늘도 자연적 및 초자연적 섭리와 개입을 통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며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대와 박 교수 측 간에 맞선 쟁점은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이다. 창조론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하는 학문으로 한국창조과학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되, 이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이다.

신학계와 교계에선 자칫 이 같은 논란이 또다시 교계 내부의 소모적 논쟁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기록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과 빅뱅우주론 및 이들 이론과 타협한 유신 진화론을 부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일보 종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세기 1:1)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 후서 10:4-5)

하나님,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유신 진화론이라는 타협의 거센 바람이 한국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신학이 도리어 사람이 만들어 낸 이론과 생각을 앞세우며 높아진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믿음의 터에 굳게 서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 안에 살아있는 예수 생명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죽은 이론과 학문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 CCTV 확산으로 감시 피하기 더 어려워져

미국 싱크탱크, 북한 내 디지털 감시체계 강화 지적



북한에서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의 북한 연구자들이 진단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거론된 ‘빅브라더’(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또는 권력자들의 사회통제를 의미)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크림슨센터 ‘38노스(North)’ 프로젝트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탈북민 인터뷰, 북한 관영매체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북한 내 감시체계 강화 문제를

진단했다.

보고서는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는) 평양의 각급 학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주요 도시들에서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많은 공장이 폐쇄회로TV(CCTV) 카메라를 기계 및 생산 절차 원격 모니터링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평양의 김일성 광장과 같은 일부 공공장소와 주요 도로 진입로 등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중국과의 접경지대에도 감시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북한 내 감시 카메라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CCTV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이 감시를 피하는 능력을 더욱더 위협한다”면서도 “그러나 카메라들의 촬영 내용이 얼마나 저장되고, 중앙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지 등은 불확실하다”고 썼다.

또 북한의 열악한 전기 공급 사정과 인터넷망에 비춰 중국에서 작동되는 수준의 고강도 CCTV 감시망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안면 인식 기술이 북한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당국은 주민들의 사진과 지문 등을 포함하는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북한 정권이 주민들 일상생활 감시를 확대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디지털 감시의 위협성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시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감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출처: 연합뉴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시편 17:7-9)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빌립보서 1:27-28)

하나님, 안전과 보안을 위한 명목으로 도로와 학교, 광장 등 가리지 않고 곳곳에 카메라를 세워 주민들을 감시하여 중국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 북한을 다스려 주소서. 디지털 감시에 대한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당국의 지시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북한 주민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위정자들이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압제와 포악을 꾸짖으사 자유가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북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를 영접하는 영혼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100명 중 성인 3명·청소년 2명 마약 불법 사용해 봤다

마약류 인지도…대마초, 코카인, 마취제 가장 높아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성인은 3명, 청소년은 2명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 마약류 피해 인식 실태조사’를 12일 발표했다.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각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또 주변 사람 중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고,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다.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89.7%, 청소년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63.5%, 청소년은 67.6%였고,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56.2%, 청소년은 57.8%로 나타났다. 성인 46.5%, 청소년 48.6%는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대해 친숙한 느낌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거래한 혐의로 10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81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우울증, 환각, 정신이상 등 부작용을 이유로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처방할 수 없지만 살을 빼려는 10대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이 약의 주요 구매자가 되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청소년 마약 근절 방안을 논의했고, 각 지방검찰에서도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예방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 재할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뉴스1, 연합뉴스 종합).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에베소서 4:18-20)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브리서 10:22-24)

하나님,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와 실상 앞에 애통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멸망을 향한 달음질을 멈추게 하옵소서. 호기심과 탐심을 자극하여 청소년들을 미혹하는 원수의 간계를 파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사 악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들의 마음을 깨워 선을 행하는 바른길로 인도하소서. 마약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다음세대가 일어나 무너져 가는 이 세대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